

박물관 사회교육의 정치성 문제

성태규*

목 차

- | | |
|---------------------------|-------------------------------|
| 1. 정치적 에레나로서의 박물관 | 1) 문화자본으로서의 문화강좌 |
| 2. 박물관 사회교육과 지역사회 | 2) 상징폭력과 사회적 재생산 |
| 1)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 | 3) 교과목편성 방향의 전환과 상징투쟁의 새로운 국면 |
| 2) 박물관 사회교육의 정치적 속성과 그 한계 | |
| 3. 박물관 문화강좌와 사회질서의 재생산 | 4. 결 론 |

1. 정치적 에레나로서의 박물관

1984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대변인 아놀드 압(Arnold Ap)이 암살되었다. 그가 국가에 의해서 암살 당하였을 때 그는 “아리안족 적인”(지방의)문화에 공헌하는 국립박물관의 관장이었다. 아놀드 압의 직업과 암살과의 관련성은 반드시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시성의 상상체와 박물관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최석영 역, 1995: 197).

박물관은 전시활동을 통하여 관람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물관은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확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대개 그 사회에서 공인되고 일반화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지식의 체계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재생산되어 나간다.

박물관의 정치성 문제는 이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시에 있어서 박물관의 정치성 문제는 우선 어떠한 권력체로부터 사상과 이미지가 추출되어 표현되며 또한 지식이 선택되어 지는가 하는 것과 연결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 권력의 자원은

* 영남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그 사회를 분류하고 정의하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각종의 문화적 권력기관으로부터 나오며 또한 이들에 의해 경험과 믿음이 지속적으로 정의되고 재창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의 체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일반화되고 공인된 지식체계에는 지배 권력층들의 상징폭력이 은폐되어 있다고 본다. 문학회에서는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 혹은 문학의 사회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부르디외는 문학회현상을 일종의 의식적 행위의 제도화 과정으로 바라본다. 즉 문학적 가치를 설정하고 작품을 만들어 배포하고 읽는 일련의 문학행위는 의례적 규칙에 따른 개인과 사회집단의 사회 행위인 것이다. 모든 의식은 그 자체에 대한 신성화와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 그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상태로 보이게 하는 경향을 갖는다. 제도화는 바로 이러한 신성화의 의식적 과정이다(현택수, 1998: 21).

이와 같은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박물관의 전시활동 역시 지배계층의 담론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공식적 기관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여지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제도로서의 박물관은 또 하나의 권력의 장이기 때문이다. 제도로서의 박물관은 국가적 이데올로기는 물론 지역사회의 지배계층의 정치적 함의와 관련을 가진다.

지배계급은 위계화된 기존의 상징질서를 피지배 계급에게 정당한 것으로 오인시키기 위하여 애쓴다. 현대사회의 계급이나 남녀관계,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문화현상은 지배- 권력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곧 상징적 권력투쟁의 과정이다. 이 과정 중에 지배계급은 은밀히 상징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상징폭력은 지배의 힘이 피지배자의 정신과 신체에 내면화되어 복속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배효과를 목표로 한다(현택수 1998: 7).

제도로서의 박물관 역시 지배계급의 담론의 정당성을 오인한 채로 이를 유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사실 차별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해석에 있다. 즉 어떤 집단의 문화를 전시에서 배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흑색화시키는데 더 은밀한 문제가 숨어 있다. 예를 들면 양반계층의 문화를 조선시대 문화의 중심축으로 하고 일반 민의 문화를 주변적인 것으로 전시하거나 교육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상징폭력을 발견한다. 민의 문화와 양반문화를 비교 전시함으로써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소재의 다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차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성에 대한 오인의 문제는 유물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골동품 시장에서 평가되고 거래되는 유물의 가치가 지배적 위치를 독점할 때의 문제인데, 소위 골동품 시장이야말로 전위적인 상징투쟁의 장이며 그곳에서 형성된 가치란 대개가 기존질서의 수호자들의

노골적인 혹은 암묵적인 권력 하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골동품 시장은 새로운 “정의” “새로운 경계선”을 요구하는 신진세력과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고자 하는 기성세력간의 투쟁의 장이다. 그러나 대개는 권위를 가진 몇몇 평가인의 서명에 의해서 유물이 평가되고 유통됨으로써 기존의 질서가 지켜지기 마련이다.

박물관이 이러한 상징투쟁에 개입되는 첫 번째 경우는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큐레이터들이 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박물관 운영의 주체이기도 한 큐레이터는 박물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여서 시장가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이것은 큐레이터가 기존질서의 수호자로서 입장을 가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식, 미학, 지식, 취향 등의 각각의 가치영역들은 독자적인 가치이념을 기초로 발전하며, 일정한 분화수준에서 등장하는 지식인들에 의해 이것은 교조적인 교리로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부여된다. 부르디외는 관행화한 일상적인 사고, 인식, 평가의 틀을 독사(Doxa)라고 표현한다.

부르디외는 지식인들에 의해 형성된 기존이론은 사회현실에 대해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은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지식인 주의”라 부른다. 지식인주의에 의해서 생성된 담론들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와 행위를 배태하고 있는데, 박물관에 종사하는 큐레이터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독사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큐레이터들에 의해 지배계급의 상징폭력이 대리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큐레이터의 문화적 전횡의 많은 부분은 지배계급에 의해 위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징폭력이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공식적 제도로써 박물관은 기존 지배계층의 상징폭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살펴본대로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박물관 내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박물관 운영주체인 큐레이터들이 이러한 기존의 담론을 비판하고 그 벽을 뛰어넘는 지적 소양을 가지느냐의 문제이다.

2. 박물관 사회교육과 지역사회

1)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

박물관은 지역사회내에 위치하면서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주민들과 끊임없이 의사

교환을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앤더슨은 민족을 상상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민족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동료들의 대부분을 결코 모르고 그들을 만나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도 듣지 않지만 그들 각자의 생각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미지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원초적인 마을 단위보다 규모가 큰 모든 공동체는 상상적인 것이다(최석영 역, 1995: 11).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그 구성원들에 의해 상상된 것이며 이것은 권력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앤더슨은 상상된 공동체의 최초판에서 신생국들의 소위 “국가 만들기”에 있어 권력을 발휘했던 세 가지 제도로 여론조사, 지도와 박물관을 들고 있다(최석영 역, 1995: 183). 사실 이것들은 식민국가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동원한 방법들이었는데, 민족주의적 열정을 가진 신생국가의 지도자들이 “상상된 공동체”를 만들어 내면서 다시 이를 이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민국가들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지배한 인간들의 본성에 대한, 지도 그리기를 통하여 그 지배 영역의 지리적 환경에 대한, 박물관을 통하여 지배의 근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던 것이며 신생국가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 만들기”를 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지역사회 역시 하나의 상상된 공동체이며 그런 까닭으로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 이미지에는 권력적 근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지배적 담론이 지역사회 공동체 이미지 형성에 절대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박물관은 전시와 사회교육의 세속화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공동체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우월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이 박물관에서 위계적으로 재배치되고 해석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박물관 사회교육의 정치적 속성과 그 한계

위에서 살펴 본대로 박물관은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 이미지 형성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박물관의 사회교육활동 역시 정치적 요소가 매우 깊게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문이다. 그 첫 번째는 사회교육의 교과편성 및 방향 설정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사회교육의 교과편성 및 방향설정 문제는 교육기획을 담당하는 조직 내지는 개인의 지적 소양 및 자질, 그리고 학문적 지향성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기 마련이어서 특히 교육기획 담당자들의 학문적 성향과 자질이 매우 중요시된다. 박물관 사회교육의 교과과정 편성과 강사진 구성에는 교육기획담당자의 학문적 소양과 방향이 그대로 투사되는 경우가 대부분

본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결정된 교과과정내용과 강사진의 학문적 성향이 바로 박물관 사회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나 정체성을 훌훌 벗어버리고 박물관에 들어서지는 않는다. 그리고 박물관 사회교육에 대하여 완전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리고 복합적인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경험하게 된다하더라도 정작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이다. 박물관 사회교육은 이러한 특별한 경험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박물관은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문화적 담지자이다. 박물관 사회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여러 언설들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부르디외에 의하면 공식적 교육기관이란 문화적 자원자본의 불평등 분배의 재생산 과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간주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박물관 사회교육영역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실 박물관 사회교육의 교과편성과 교육방향의 설정과정은 문화권력의 세속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박물관의 문화권력의 세속화 과정에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중 하나는 박물관을 후원하는 집단으로부터 비롯되는 압력이다. 대개의 후원단체는 후원의 대가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지배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박물관으로서는 그들의 기대를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되며 따라서 교과과정도 이들이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기가 쉽다. 박물관은 지역사회 내에 형성된 사회적 정치적 연망 속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좋은 싫든 간에 박물관과 지역사회의 지배계급간의 우호적 관계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지역사회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박물관 사회교육부분이 가지는 또 하나의 한계일 수도 있다.

3. 박물관 문화강좌와 사회질서의 재생산

1) 문화자본으로서의 문화강좌

박물관 사회교육의 정치성과 함께 두 번째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박물관 사회교육의 장을 상징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지역사회주민들간의 정치적 관계이다. 부르디외를 따르면 사회

공간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자들로 구성된 곳이다. 부르디외는 경제, 사회, 문화영역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권력수단(자본)을 동원한다고 보며 경제적 영역에서는 경제자본이,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자본이, 사회적 장에서는 사회자본이 동원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을 위계관계에서 정당화시켜주는 것을 상징자본이라 한다.

박물관 문화강좌의 주 대상은 지역사회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성원의 사회적 성격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사회경제 계층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각 영역별로 집중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영남대학교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매학기 수강생의 80%이상이 여성이며 연령층은 40-50대가 주를 이룬다. 직업에 있어서 여성일 경우는 가사를 전업으로 하는 가정주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남자일 경우는 정년퇴직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남대학교 박물관 사회문화강좌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필연성이 존재하는데 우선 박물관 사회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함께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참여의 제한성 때문에 박물관 문화강좌는 당연히 특수계층의 집단으로 그 성격이 특성화되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렇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인식과 함께 박물관문화강좌는 지역사회주민에게 중요한 문화자본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한때 박물관 문화강좌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박물관 문화강좌반을 수료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상류계층의 하나의 조건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사실 이것은 박물관 문화강좌개설 취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영남대 박물관보다 먼저 사회교육을 시작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 문화강좌를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와 관련된 담론이 형성되고 유통된 것도 국립중앙박물관 쪽이 먼저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문화강좌가 문화자본으로 인식된 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에서 흘러나온 담론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박물관 문화강좌가 중요한 문화자본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통신수단의 급격한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컴퓨터 통신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발달은 세계를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는 경제부문에 까지 깊숙히 침투하여 문화가 하나의 경제적 상품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문화자본과 경제자본 영역간의 상대적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상

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박물관 문화강좌는 문화자본의 축적은 물론 곧 그것이 경제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된 것이다.

2) 상징폭력과 사회적 재생산

영남대학교 박물관 문화강좌의 경우, 수강생 구성에 있어 사회 계층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그 내부에는 자본 궤적에 따른 다양한 분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그 내부는 크게 3가지 종류의 분파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의 관계는 위계적이다. 편의상 첫 번째 분파를 A, 두 번째 분파를 B, 세 번째 분파를 C라고 칭한다. A파는 고위 공무원 및 각급 기관장 부인과 기업체 사장 부인들 중에서도 직업을 가지지 않는 전업주부들로 구성되며 B파는 고급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 C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성들로 구성된다.

K회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고위 공무원들 부인들의 모임인데 이들이 박물관 강좌에 참여함으로써 A파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경제 자본보다는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부류들로 문화 자본의 축적과 사회 자본 축적을 강화할 목적으로 박물관 문화강좌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같은 분파에 속하지만 기업체 부인들은 경제적 자본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계질서 내에서 지배 계급을 형성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경우는 K회 회원과 마찬가지로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 축적이 참여의 목적이 되지만 자본 궤적이 다른 데에서 유별성을 가진다. 즉 이들의 대부분은 문화 자본과 사회자본 축적 그 자체에 참여 목적이 있다.

B파는 문화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주류를 형성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기관의 종사자들과 갤러리 운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문화를 상품화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A파의 사람들과는 문화상품의 공급과 소비활동을 통하여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부류의 사람들 역시 문화자본의 축적과 사회자본 축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문화자본보다는 사회자본 축적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C파에는 일반 가정주부들이 주를 이루는데 부루디외가 자본규모 별로 나눈 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중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참가 목적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문화자본 축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자본 획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문화강좌내용에 관심을 가

지며 다른 분파나 C파 중에서도 사회자본획득에 비중을 두는 부류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징투쟁에 소극적인 양상을 띤다. 이를 C-1파라 칭한다.

여기서 상징투쟁이라 함은 상징자본의 획득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자본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함으로써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사회적 의미관계를 지칭한다. 상징투쟁에서 다른 파의 사람들과 표면적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사회자본 획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C파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회 자본의 획득을 통하여 문화자본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면서 상징자본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를 C-2파라 칭하겠는데, 박물관 문화강좌라는 상징투쟁의장에서 A파의 사람들과 가장 많은 갈등이 야기되는 집단이 이 집단이다.

A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머지 분파의 사람들과 문화적 취향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다른 분파의 사람들과 구별짓기에 들어가는데 이를 “타자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이 “타자만들기”의 첫 번째 대상은 C-2집단으로, 주로 사회자본 획득에 비중을 둔 부류들이다. 이들은 박물관 문화강좌를 통하여 사회자본을 획득함으로써 지위상승의 꿈을 안고 있는데 이것은 “타자만들기”를 시도하는 A파 사람들의 투쟁목표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임원단 구성에서 노골화되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임원단의 인적구성에서 시작되었다. A파의 사람들에 의해 그 인적구성이 주도되었으나 임원단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다른 분파에 속하는 사람들도 소수 참여하게 되었다. 소수이나마 다른 분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임원단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A파 사람들 중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박물관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임원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소위 운영과정에서 “타자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가장 갈등이 첨예화된 집단은 역시 A파와 C-2파였다. 결국 갈등은 암묵적으로 전개되었지만 후자가 임원단에서 하나 둘씩 빠져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르디외는 이를 상징폭력으로 해석했다. 지배계급은 이러한 상징폭력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신분은 사라졌지만 행위자들은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계급위치를 드러낸다. 피지배계급은 모든 것을 기능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지배계급은 형식과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래서 피지배계급은 배부른 음식과 입기 편한 옷을 더 좋아 하지만

지배계급은 맛난 음식과 식사예절, 아름다운 옷을 더 좋아한다. 지배계급은 솔직함과 직선적인 언어표현을 싫어하지만 피지배계급은 이런 것을 더 좋아한다. 피지배계급은 신체의 아름다움을 위해 그다지 투자하지 않지만 지배계급은 이것을 위해 엄청나게 투자한다(이상호, 1998: 172). 역시 부르디외의 말이다.

3) 교과목편성 방향의 전환과 상징투쟁의 새로운 국면

영남대 박물관 문화강좌가 수강생 구성의 사회적 성격에 있어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개설 3주년이 되는 6기생들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화강좌의 방향성의 변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박물관 측에서 교과목 편성 방향을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으로 박물관문화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강생들의 여론 반영에 있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박물관 문화강좌 중급반의 편성이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박물관 문화강좌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중급반을 별개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급반 편성은 실패로 끝을 맺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급반이 있으면 고급반이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더욱 진전된 교과목이 배려되어야만 평생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급반이 만들어지고 중급반의 강의 주제를 인류학,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으로 바꾸면서 중급반을 5학기간 운영했으나 결국 고급반을 기대하는 수강생들의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박물관 측도 현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한계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고급반을 만들어 또 다시 중급반처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의 취지는 역시 살려나가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영남대 박물관은 문화강좌 개설 6주년을 즈음해서 중급반을 폐지하는 대신 기본적으로 운영되던 박물관 문화강좌의 성격을, 똑같은 강좌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매 학기마다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교과과정을 계속 바꾸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은 박물관 평생교육의 취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즉 이전까지의 기본적인 박물관 문화강좌는 교과과정이 매학기 반복됨으로서 수강생들에게 1회만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비해 교과과정 편성이 전환된 후에는 수강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교과과정의 방향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수강생들의 사회적 성격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축적을 강화할 목적으로 참여한 A파와 B파의 성원들은 중급반이 폐지되면서 서서히 박물관 문화강좌 참여도가 낮아졌는데, 결국 그것은 문화자본 축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C-1파가 박물관 문화강좌의 주류를 이루게끔 만들었다. 한편 A파의 비중이 줄어들자 이들과 첩예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C-2파의 사람들 중에 재등록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박물관 문화강좌는 결과적으로 C파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후 A파는 영남박물관회라는 민간주도의 문화단체를 결성하고 영남대학교 박물관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과 문화 유적지 답사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가입에 있어 기존회원들의 묵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회원들의 저변확보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A파가 다른 파와 변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투쟁의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속성으로, 이 집단의 당연한 한계일 수도 있다.

A파가 일단 문화강좌외부로 나감으로서 문화강좌 내부에서는 새로운 상징투쟁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C-1파와 C-2파간의 새로운 갈등양상의 전개였다. C-1파가 박물관 문화강좌의 참여 목적을 여전히 문화자본의 축적에 두고 있었다면 C-2파의 참여목적은 사회자본 축적에서 새로운 계급성 확보로 전환되었다. A파와 결별한 가운데 A파를 통한 사회자본의 획득의 가능성은 멀어졌으나 오히려 지속적인 박물관 문화강좌의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계급성의 확보가 가능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들은 수강횟수가 증가될수록 자신들의 계급성은 더욱 명료해진다고 판단했으며 이것으로 다른 부류들과 변별성을 두려는 새로운 “구별짓기”를 시작한 것이다. 문화자본 축적에 관심을 가지는 C-1파는 C-2파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이 두 분파간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갈등적인 측면에서 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생들간의 내적 분파도의 흐름을 추적해 보았다. 사실 갈등은 보편적으로 사회분열의 중요한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갈등은 협동의 또 다른 면이다. 인간사회의 갈등은 보편적인 것이며 이로부터 정치의 장이 전개되는 것이기도 하다. 박물관 큐레이터의 중요성은 이러한 갈등의 양상과 그 요인을 올바르게 분석함으로써 박물관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데 있다. 앞으로 이 여러 분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박물관 문화강좌에 참여시키느냐에 따라 영남대 박물관의 사회교육의 성패도 가늠될 것이다.

4. 결 론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문화는 단순히 상부구조로서가 아니라 하부구조의 생산에까지 깊이 관여하는 사회전반에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체계모니가 하나의 정치적 에레나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문화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박물관의 사회적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박물관은 이러한 문화적 권력기관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자성을 통하여 다른 문화적 권력기관과 관람객들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박물관의 올바른 역할은 권력의 중심에서 빠져 나와 다양한 사회 계층적 맥락 위에서 그 사회의 문화를 설명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자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데 있으며, 또한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상징폭력에 대한 올바른 비판 위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박물관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기존의 다양한 해석을 전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박물관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곳이기보다는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는 곳이라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물관은 여러 사회 계층의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장이 되어야 한다.

박물관 사회교육에 있어서 정치성 문제의 등장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의 장 역시 정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회조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올바른 사회교육의 방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며 전개되는 상황에 대하여 항상 분석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최석영 역, 1995, 『민족의식의 역사인류학』, 서경문화사
- 현택수외, 1998, 『문화와 권력』, 나남 출판
- 이상호외, 1998, 『문화와 권력』, 나남 출판